

의정비심의위원회 5차 회의록

회의 개최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실
일시 / 장소	2018. 12. 24(월) 14:00~15:45 / 세종시청 5층 집현실
참석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 이상인(위원장), 서성규, 신상두, 김지훈, 전응구, 변영호, 이영민, 이연숙, 이영선, 이희경
배석자	정책기획관 김덕중, 의회협력담당 오의택, 김미영 주무관, 김희진 주무관, 김진화 주무관 ※ 세종경찰서 김기훈 경사
상정 안건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12.21) 설문응답결과를 토대로 의정비(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여부)·여비 최종 결정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p>① 의정비 지급기준 최종 결정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 5,328만원(월 444만원) → 현재보다 26.86%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 정액 지급 → 현재와 동일 - (월정수당) 3,528만원(월 294만원) → 현재보다 47% 인상 ○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 만큼 매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참석자 설문결과,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일부(36%) 시민의견도 고려하여 4차 심의위원회의 잠정 결정사항(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월정수당 인상)을 수정하여 결정 <p>② 의원 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위원장) 위원님들 열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먼저 설문응답결과 개봉이 있겠습니다. 경찰(세종경찰서 김기훈 경사)에서 입회하여 저와 함께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심의위원이 보는 가운데 개봉)

☐ (의회협력담당) 설문응답결과 개봉 및 집계 전에 회의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이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이영민 위원·의회협력담당 주무관들이 설문결과 집계)

□ (위원장) 제3대 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심의위원 10명 중 10명이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 지난 21일 오후 2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도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공청회는 발표자들의 찬반 발표, 발표자간 상호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 청취, 설문지 작성안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공청회에서는 찬성 3분, 반대 3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반대 발표를 신청하여 의견을 발표하셨던 분들도 의정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잠정결정금액에 대한 인상 폭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셨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 또, 방청인 7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예를 들며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향후 의정활동이 원활히 되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재가 등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청인들의 의견이 끝난 뒤에 패널들의 추가·정리발언이 있었고, 뒤이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 참여 전체 인원은 100여명이 되었으나 시간 여유가 없어 자리를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경찰관(세종경찰서 송영재 경감)이 입회하여 설문조사를 배포한 결과, 75명의 설문응답을 받아 주말동안 세종경찰서에서 보관하였습니다. 설문응답결과를 모았을 때 경찰관과 공청회 주재자인 제가 입회한 가운데 테이프로 봉인하였고 그 테이프 위에 싸인하였습니다. 봉인했던 설문지는 오늘 5차 회의가 시작하기 직전 경찰관(세종경찰서 김기훈 경사)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경찰관과 함께 회의 개최 전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보시는 앞에서 개봉하였고 계수하였습니다.

○ 설문지 집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75명의 설문응답결과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기준금액이 적정하다고 답한 인원이 42명,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인원이 33명이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잠정 결정기준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인원 중 잠정 결정기준금액이 높다는 의견은 27명, 낮다는 의견은 6명이었습니다.

○ 즉, 설문으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 42명, 높여야 한다는 의견 6명, 낮춰야 한다는 의견 27명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액에 대해 시민들의 과반수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 (이희경 위원) 우선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공청회에 모여 설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잘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위원회가 잠정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의견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 (이희경 위원) 네, 물론입니다.

□ (신상두 위원) 주변에서 단계적으로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적정하다는 설문 결과가 과반수 나왔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선 위원) 잠정금액으로 최종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적정 내지 더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48명이고, 적정하지 않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27명이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의 잠정 결정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의의 잠정 결정 금액 결정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난 4차 회의에서 결정했던 잠정 결정금액대로 최종 결정했으면 합니다.

□ (서성규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5,328만원의 의정비를 놓고 보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보다는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내린 결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적정하다 내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금액을 최종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전응구 위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잠정 결정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좋은 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서 보고 있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의정비 수준은 2018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5,328만원으로 내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더라도 전국 광역 시도에서 차후 결정되는 내년 의정비와 비교한다면 그 역시 최하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연차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결정했던 잠정 기준금액에 저도 동의합니다. 의원들도 의정비 인상 결정 소식을 알게 된다면 세종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변영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현실적인 면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상당히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5,328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지훈 위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의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75명의 설문으로 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히 확보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해왔던 자료와 과정을 보시고 시민 과반수가 찬성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잠정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했던 것을, 우리 세종시에서는 생활임금 인상률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차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도록 기록 유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차회의때 잠정 결정한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 최종 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그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민 위원) 저는 지난 4차 회의에서 2019년 의정비로 원래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5,328만원이라는 금액을 보니 현재 의정비에 비해 1,128만원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세종시민들에게 과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4차례의 회의를 미루어 볼 때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월정수당의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5,328만원으로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 월정수당을 동결하더라도 차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연숙 위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여론이 참 팽팽했습니다. 저도 역시 2019년 의정비로 5,000만원 미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공청회에서는 팽팽한 찬반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바이지만 한꺼번에 너무 큰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2019년 의정비는 잠정 기준금액으로 결정하되 2020~2022년 동안은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다섯 분 정도는 잠정금액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한 월정수당의 매년 인상에 동의하시고, 나머지 두 분 정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까지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너무 높은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큰 인상폭이기는 하나, 잠정 결정되었던 5,328만원을 최종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2019년 의정비 잠정금액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것인가를 나누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응구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월정수당을 동결한다면, 차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위촉되었을 때 타시도와 다시 또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4차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인상했으면 합니다.

□ (서성규 위원) 저희가 잠정 결정했던 금액으로 내년도 의정비가 결정될 경우 전년 대비 약 1,100만원 가량 인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지자체는 자료로 보아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영민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의 의견처럼 2019년 월정수당이 2018년 대비 47%의 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월정수당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상두 위원) 저도 5,328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월정수당이 오르게 된다면 6~7%의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작은 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현재 2019년 이후의 월정수당을 동결할 지, 단계적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응구 위원) 연차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더라도 2018년 전국 광역 평균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인상요인 고려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일하려면 그에 맞는 의정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민 위원) 한 번에 큰 인상을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정하게 올려주고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어난 방청인들 중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까지 반영한 월정수당 인상은 너무 지나친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영호 위원) 인상폭이 크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동결은 의정비 현실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 과반수 이상 적정하다고 나왔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했던 잠정금액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월정수당 인상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민 위원) 세종시가 광역 자치단체로 구분되고 있지만 32만의 도시로 인구가 작은 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똑같이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보다도 인구가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인상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잠정 결정한 금액에 대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의결정족수 이상이 적정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 (다른 위원들)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럼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2019년 의정비를 5,328만원으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단계적으로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할 것인가를 별도 안건으로 논의하겠습니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의 단계적인 인상여부에 대해 표결에 부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 (위원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의 동결안과 단계적 인상안이 5대 5로 팽팽한 입장입니다.

□ (이영선 위원) 지난 4차 회의에서 2019년 의정비 기준금액을 5,328만원으로 결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었습니다. 이 잠정결정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정이 적정하다는 시민의견이 수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결하자는 결정으로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성규 위원)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법령에도 쓰여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할지는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영민 위원) 걱정한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관 입회 하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위원회의 표결도 5대 5가 나왔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운 바입니다.

□ (위원장)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절충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27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 (이영선 위원) 5,328만원이라는 금액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비현실을 현실화하는 것, 불공정을 공정하게 바로 잡는 것으로 보고 현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성규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은 2019년 의정비 5,328만원 전체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2019년 월정수당인 3,528만원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2019년 의정비를 5,328만원으로 결정하여 현실화를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2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다른 위원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럼 만장일치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2을 반영해서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를 소화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